

# Euro貨 출범과

## 對EU수출, 투자에 미치는 영향

본회 민간전자 통상협력위는 대외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이해증진 및 효과적 대응의 일환으로 정부와 업계간의 효율적 통상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통상전략 포럼을 “IMF체제 하의 통상 대응방안” 이란 주제로 민간전자통상 협력위원회위원, 50대 수출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본고에서는 포럼의 주요 주제 발표 내용을 수록하였다.

김 박 수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목 차

1. EU의 세계경제적 비중
2. EU통합 추진실적 및 전망 요약
3. EMU의 출범과 회원국 경제에 대한 영향
4. EMU가 세계경제 및 금융 질서에 미치는 영향
5. 단일통화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6. 한국의 대응방향

### 1. EU의 세계경제적 비중

- EU는 15개 회원국에 3억 7천 만명의 인구를 포용하고, GDP 약 8조 달러에 세계 무역의 약 40%를 차지하며, 북유럽의 핀란드에서 지중해의 그리스에 이르는 세계최대의 단일경제 권이다.

- 99년에 출범하는 경제통화통합(EMU)범도 11개국에 참여하며 총 인구가 약 2억9천만 명에 달해 미국의 2억6천만 명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개 EMU 회원국의 총 GDP 규모는 1997년 약 6조 3,000억 달러로서 미국의 약 80%에 달하는 등 대규모의

EU-미국-일본간 경제지표비교

	GDP (십억불)	인구 (천명)	전세계 수출에서의비중*	전세계 수입에서의비중*
	1997	1995	1996	1996
미국	7819.3	263,057	12.66%	14.25%
일본	4223.4	120,750	7.31%	7.15%
EMU11	6303.6	288,959	32.51%	30.76%
EU15	8093.4	372,086	40.57%	38.63%

<참고>

한·EU관계에 대한 주요 통계

\* 상품 및 서비스를 모두 포함함. EU/EMU의 경우 역내무역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OECD, Frequently Requested Statistics, Feb 1998, WTO, Annual Report 1997.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특히 대외지향성이 강한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EMU-11은 대외교역에 있어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역내 교역을 포함할 경우 EMU가 세계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수입에서 각각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역내 교역을 제외하더라도 약

13~14%를 각각 차지하게 되어 일본을 능가하고 미국에 버금가는 정도의 대외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 2. EU통합 추진실적 및 전망 요약

년 도	세 부 내 용
52년 7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창설 <파리조약>
58년 1월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 원자력공동체(EURATOM) 발족<로마조약>
67년 7월	EEC, EURATOM과 ECSC를 EC로 통합
68년 7월	관세동맹 완성
73년 1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EC 가입
79년 3월	유럽통화제도(EMS) 발족
81년 1월	그리스 EC 가입
85년 6월	EC시장통합을 위한 백서 채택 (시장통합 목표시한 92년 12월 31일)
86년 1월	스페인, 포르투갈 EC 가입, 12개국 체제 성립
87년 7월	단일유럽의정서 발효
90년 10월	독일통일, 구동독지역의 EC 가입
91년 10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의 유럽경제지역(EEA) 창설 합의
91년 12월	EC정상회담에서 마스트리히트조약 합의
93년 1월	단일시장의 공식적 출범
93년 11월	유럽연합(EU)발족 <마스트리히트조약>
94년 1월	유럽통화기구(EMI) 설립 및 EEA출범
95년 1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EC 가입 예정
99년 1월	중앙은행설립 및 단일통화 Euro 출범
2002년 7월	Euro의 전반적 사용
2002년경	일부 동유럽국가 EC 가입 예상

### 3. EMU의 출범과 회원국경제에 대한 영향

- 99. 1월 EMU(3단계) 출범 가능여부를 두고 그간 논란이 많았으나, 지난 5월 2~3일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MU특별유럽이사회”에서는 EU의 전체 15개 회원국중 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스의 4개국을 제외한 11개국을 99년 1월 1일 정식으로 발족하는 EMU의 초대 회원국으로 결정함으

로써 EMU의 출범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 EMU참여국은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물가상승율, 장기이자율, 재정적자, 환율에 관한 97년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등 EMU 불참국중 영국과 덴마크는 통화통합이 완료되는 2002년 6월말까지 유럽단일통화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
- EMU 출범에는 비관적인 견

해와 낙관적인 견해가 교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EMU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다.

- 각 회원국간의 정책조화 노력으로 인플레이 없는 성장기반 구축
- 당초 예상(8개국)보다 회원국 수가 확대됨에 따라 Euro의 통용범위 확대
- EU 경제의 향후 2~3년간 상승세 지속 전망

#### EMU의 향후 주요 추진일정

1단계	1998년초반	- 참가회원국 확정 - ESCB, 유럽중앙은행(ECB) 설립(1998.7 예정)
	1999.1.1까지	- 유로 지폐와 주화 생산시작 - 단일통화의 도입 및 단일통화정책 실시를 위한 완벽한 법제 형성 - 각국의 운용체계(Steering Structure) 형성 - 은행, 금융계 유로로 전환시작
2단계	1999.1.1	- 변환비율 확정 - 유로가 공식화폐로 지정 - ECB의 유로를 통한 단일통화/외환정책 수행 - 은행간/통화/자본/외환 시장을 유로로 운영 - 도매금융지불시스템(Wholesale payment system)을 유로로 운영 - 회원국 정부가 발행하는 모든 국채의 유로 표기 의무
	1991.1.1~2002.1.1	- 공공/개인부문 전환시작
3단계	2002.1.1~	- 유로 지폐, 주화유통 시작 - 은행 유로 전환 완료(소매금융지불시스템) - 회원국지폐, 동전회수 - 유로만 유통(늦어도 2002.7.1까지 완료) - 공공/개인부문 전환 완료(늦어도 2002.7.1까지 완료)

1) EMU 출범이후 EU의 경제정책 전망

가. 통화정책

-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안정에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통화정책을 수립·집행할 전망이다.
  -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유럽중앙은행의 설립목적을 물가안정으로 명시(제105조)
- 유럽중앙은행이 단일통화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각 회원국 중앙은행들은 유럽중앙은행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제도(ESCB)를 구성하여 ECB의 지침과 지시를 집행하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은 EMU참여국 재무장관으로 구성되는 Euro-Council(일명 Euro-X)의 의견을 참작하고 환율, 장기금리, 성장률 등 관련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통화공급을 신중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 환율정책

- 단일통화 참가국간에는 취소불가능한 고정환율을 적용하나, Euro화와 단일통화 미참가국 통화간에는 새로운 환율조정 메카니즘(ERM II)에 따라 변동 폭이 상하 15%이내에서 변동되도록 운용하고 있다.
- 미국, 일본 등 역외국 통화와

의 환율은 국제금융 및 자본시장 이동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하며,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쌍무간 또는 IMF 등 국제기구 조정 하에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은 참가국에서 출연한 외환과 금을 재원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환율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다. 재정정책

- 통화정책 및 외환정책과는 달리 재정정책은 통화통합 이후에도 각 참가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나,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제조화기준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정적 수준으로 운용이 예상된다.
  - 각 참가국의 무절제한 재정 운용에 따른 금융시장 교란 및 Euro화 가치의 불안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안정 및 성장협약(Stability & Growth Pact) 채택

2) 단일통화 도입이 EU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경제구조 재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

- 재화와 용역가격의 단일통화 표시로 가격체계의 명료화 및 환율변동 해소로 역내시장 통합이 심화되고 있다.

• 역내 회원국간 투자수익률이 높은 국가로의 자본이동 촉진으로 투자가 활성화되며 이에 따라 생산성이 제고된다.

• 단일통화참여 국가간 교역 확대

- 동종 기업간 M&A, 저임국가 또는 사회간접시설이 완비된 지역으로 기업이전 등으로 규모의 경제실현 및 시장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 유럽중앙은행의 안정위주 통화정책 수행으로 물가 및 금리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경우, 96년 2/4분기 이후의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그러나 단일통화도입 추기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긴축정책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가 침체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나. 금융비용 절감

- 역내 통화간 환전비용,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한 헤지 비용, 국경간 자금 이동에 따른 비용감소로 생산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 EU 집행위는 통화통합으로 유럽내 외환거래의 약 20%(점두거래 포함)가 감소하고, 연간 약300억달러(EU 전체 GDP의 0.5% 수준)의 외환거래 비용 절약 추산

- Euro화가 국제통화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경우, EURO ZONE역내 기업들은 단일통화 불참국가와의 거래 시에도 Euro화를 사용함으로써 환거래 비용의 절감이 예상된다.

#### 다. 금융산업구조 개편

- 역내 금융기관간 경쟁격화로 금융구조의 재편이 가속화될 예정이다.

· 금융기관간 M&A로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예상되며, 소형 은행의 경우 특정 금융시장 또는 특정 고객층의 전문화가 예상된다.

- 금융 유동성이 확대된 광역화된 금융시장의 등장은 기업의 자금조달원 확충과 조달비용 절감효과를 수반하고 있다.

· 금융기관간 경쟁에 따라 금리와 수수료를 인하가 예상되며, 채권 발행 금리도 환율 리스크 소멸로 인해 국가간 또는 채권발행기관간 금리격차 축소가 예상된다.

#### 4. EMU가 세계경제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 가. 세계 최대의 단일통화권 대두

- EU 회원국의 경제 및 교역규모로 볼 때, 세계 최대의 단일통화권을 형성, 실질적인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의 부상이 전망된다.

- EU내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역내 교역이 증대되고 대외경쟁력이 제고됨으로써, 세계 교역시장에서 EU의 비중이 증대(수출증가)되고 있다.

· 역내 교역증대에 따른 대외 의존도의 상대적 약화 및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공세적 무역정책 추구로 무역장벽 강화 초래가 예상된다.

##### 나. 달러화에 상응한 국제결제 통화로 부상 가능

- 국가간 결제통화가 교역당사국 통화로 전환되는 추세인 바, 미 달러화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독일 마르크화 및 일본 엔화의 비중이 점증하고 있으므로 EURO화의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프랑스 프랑, 이태리 리라 등 단일통화 참가국들의 통화량도 상당한 비중이다.

- 향후 EU 국가의 교역이 더욱 신장되고 Euro화의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질 경우, 국제금융시장에서 Euro화의 비중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유럽중앙은행은 Euro화가 국제결제통화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Euro표시 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각종 금융수단을 개발할 예정이다.

· 현재 EU 회원국 통화가 국제결제 및 세계 각국의 공적보유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1/3 수준인 바, Euro화는 국제통화로서 달러화에 이어 제2의 기축통화로 발전할 전망이다.

##### 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 단일통합 도입후 단기적으로는 현 유럽의 사실상 기축통화인 마르크보다 약세 통화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통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통화통합 참여국간의 결제가 Euro화로 이루어질 경우, 기존 외환 보유액중 달러화의 Euro화로 대체가 예상되므로, 이 경우 미달러화 약세가 불가피하다.

· 각국은 통상 3개월분 수입액에 해당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나, 단일통화 도입 이후에는 참여국간의 역내 교역이 국내 거래로 분류되어 Euro로 결제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은 축소(EU 회원국 수입액 중 역내 국가간 거래 비중은 약 60%)

· 일본의 경우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미달러화로 보유하고 있으나 미달러화 표시분중 상당부분을 점차 Euro화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자국통화를 Euro화에 연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Euro화는 단기적으로는 마르크보다 약세, 장기적으로

로는 강세를 시현, 달러화와 함께 주요 기축통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즉 Euro는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등의 약세 통화와 마르크화가 가중평균됨으로써 현재 마르크화보다는 약세로 출발하나 국제결제 및 공적보유통화로서 Euro화에 대한 수요 증대, Euro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강세가 예상된다.

라. 새로운 국제금융시장의 등장

- 유럽 단일통화권의 등장은 유럽 금융시장의 광역화로 뉴욕, 동경 금융시장에 필적할 새로운 국제금융센터가 창출될 것이다.

· 유럽중앙은행이 통합 통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Euro화의 환율이 안정될 경우, 프랑크푸르트·파리 등 유럽 대륙내 금융시장이 새로운 국제 금융센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 영국의 경우 통화통합 참여부에 관계없이 런던 금융시장도 기존의 우위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금융시장 발달로 유럽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 런던 금융시장은 규제가 적고 금융하부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언어상의 이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 Euro의 금리수준은 현 독일의 이자율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충분한 경쟁력 유지가 예상된다.

·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이자율이 높은 나라(5~6%)와 독일 등 이자율이 낮은 나라(3%)간에 이자율 수렴과정이 진행중이다.

· 독일 연방은행은 97. 10. 9 단기 유동성 조절수단인 RP의 입찰금리를 3.0%에서 3.3%로 인상하였으며, 4.5% 수준까지 인상할 전망이다.

## 5. 단일통화도입에 따른 여상 문제점

가. 통화통합작전(99. 1월이전)

- 환투기에 의한 유럽 외환위기 초래 가능성.

· 98. 5월초 Euro 참여국 통화와 Euro화의 고정환율이 결정될 예정인바, Euro화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신뢰성이 결여될 경우 또는 돌발적인 경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환투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

· Euro를 신뢰하지 않을 경우  
→달러매입 등으로 유럽 통화 전체 폭락

· 각 회원국의 장래 경제기초 여건이 고정환율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회원국 통화중 간세

통화 매입, 약세통화 매각 사태.

나. 통화통합이후(99. 1월이후)

- 참여회원국은 독자적인 환율 및 금리정책 수단 상실.

· 재정정책은 각국에 위임되어 있으나, 경제조화 기준의 하나인 재정적자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수행 가능하므로 임금정책만 정책수단으로 남는다.

- 따라서 경제기초 여건이 취약한 회원국이 국제수지적자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래 세 가지 정책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각각 한계에 봉착.

· 임금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려 할 경우, 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근로자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 자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특혜 부여시, EU 차원의 불공정한 조세경쟁 규제에 직면하고 있다

· 회원국간 노동의 원활한 이동도 언어, 문화 장애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 결국 독자적인 경제정책 수단이 없는 각 회원국이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이 초래되어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 실시 압력을 받을 경우 정치적 요인에 의해 단일통화 참

## 한·EU 무역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1985	1990	1995	1997	1998.1~4
한국의 대EU 수출	3,568	10,035	16,302	16,864	5,632
(총수출 비중)	11.7	15.4	13.0	12.4	12.7
한국의 대EU 수입	3,325	9,076	18,191	18,983	3,990
(총수입 비중)	10.7	13.0	13.5	13.1	12.4
한국의 대EU 무역수지	243	95.7	-1,889	-2,119	1,642
〈참고〉					
한국의 총수출증 비중					
미 국	35.5	25.8	19.3	15.9	16.2
일 본	15.0	19.4	13.6	10.8	9.5
ASEAN	5.0	7.8	14.3	14.9	11.2
한국의 총수입증 비중					
미 국	20.8	24.3	22.5	20.8	20.6
일 본	24.3	26.6	24.1	19.3	17.9
ASEAN	8.7	7.3	7.5	8.7	10.2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 한국의 대EU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93		1994		1995		1996		1996말 잔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독 일	3	76.6	7	122.9	12	65.6	10	83.1	75	370.3
영 국	5	27.1	4	26.5	14	68.9	14	217.5	62	371.5
프 랑 스	2	34.9	3	45.6	4	53.2	3	11.5	24	175.9
네 달 란 드	1	0.2	6	6.0	1	158.9	7	62.8	24	236.9
포 르 투 갈	-	7.5	1	39.7	-	2.9	1	0.1	4	49.3
스 웨 덴	-	4.8	2	22.3	1	10.3	1	1.2	8	47.0
E U	12	157.2	28	280.1	34	354.0	39	382.3	222	1,336.5
북 미	58	390.3	136	1,573.1	133	545.9	189	1,576.6	920	4,327.0
동 남 아	544	484.3	1,212	1,080.3	1,008	1,640.5	1,035	1,599.2	4,806	6,055.4
합 계	617	1,014.8	1,407	573.1	1,119	2,748.1	1,392	4,176.3	6,653	13,757.0

자료: 한국은행, 「해외투자연보 1997」

역을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엄격한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최적 수준에 미달하는 공공지출로 인해 국민복지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 유럽단일통화 출범의 순기능을 상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6. 한국의 대응방향

- 한국과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외환금융위기 이후 외환의 조달에 경제의 사활이 걸려있는 국가로서는 유로화의 등장이 미칠 파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하는 한편 이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선 다음과 같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첫째 유로참여국과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은 원가절감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유로도입에 따라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종이, 소프트웨어 등이 수출에 주력하는 한편 가격의 단일화에 따라 기존의 마케팅 전략도 재검토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기계류 등의 수출에

힘써야 할 것이다.

- 또한 유럽의 중화학 제품과 국내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도 유럽의 향상된 경쟁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둘째, 무역대금의 결제에 있어서도 현재 85%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달러의 비중을 낮추고 3% 수준인 EU회원국 통화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달러약세화에 따른 환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유로화는 EMU참여국과의 거래 뿐만아니라 중동구, 지중해연안국 등 유럽과 거래가 많은 국가에서도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소한 이들 국가와의 무역비중과 비슷한 15% 수준까지 유로화 결제비중을 늘려가야 할 것이다.
- 셋째 외환을 조달하려는 금융기관과 기업은 유로화표시 채권 및 주식의 발행을 통하여 유로화의 차입비중을 늘려감으로써 외환보유를 달러중심에서 탈피하여 예상되는 달러약세화에 따른 환차손을 최소화하고 무역결제 등에 따른 유로화의 수요증대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 유럽현지에 진출해 있는 금융기관은 참여국 금융시장의 광역화 및 집중화에 대비

하여 유럽금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시장에 투자 은행으로서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넷째 현재 외환위기로 해외투자를 확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EMU의 중심국인 독일, 프랑스 같은 국가에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늘려가야 할 것이다.
- 유로권은 11개국으로 출범하지만 여타 EU회원국도 멀지 않아 EMU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21세기 초에는 중동국가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독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이들 국가를 거점으로 거대유럽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EMU는 참여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에 버금갈 뿐만 아니라 인구와 무역규모가 미국을 능가하기 때문에 유로화의 등장은 미국과 유사한 거대한 규모의 단일 경제권이 유럽에서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EMU참여국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유로화 등장에 따른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분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